

개청 60주년,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 농진청, 새해 업무계획 발표

# 지속가능 농업 디지털 기술 개발·현장 확산

농진청(청장 박병홍)은 27일 2022년 농진청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2년 농진청은 다음 네가지 핵심 추진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AI)을 개발한다. 공공데이터와 AI 모델을 민간에 개방하여 농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에 디지털농업을 가속화 하여 버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시

### 첨단기술로 무장 정예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품종·재배기술 개발

킨다. 노지채소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사육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한다.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배출량 산출을 고도화한다. 벼 재배 논물관리, 저탄산 사료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측?경보 기술을 고도화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을 지원한다. 국내적응성 평가를 마친 아열대 작물의 재배 기술을

확립한다.

####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청년농업인은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예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사업 등의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특화 작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중앙-지방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품종 개발과 재배?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정비,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업센터 설치 등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모델을 개발하고 품질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업 현안 해결 기술 개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한다. 국산 벼 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해 품종 싹을 대체하고 가공 적성과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밀 품종 벼?밀 이모작에 적합한 작부체계도 확립한다. 논, 이모작 재배에 적합한 공 품종을 개발하여 현장에 신속히 보급한다.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발효농기계 개발을 확대한다.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 작업의 농기계를 집

중 개발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 농작업 기계도 개발한다.

농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자원을 강화한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천기술을 현장에 보급한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합관리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의 등록을 확대한다. 부정?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새싹귀리, 쌀순 등 식량작물과 흑삼, 강황, 황기 등 특용작물 등의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등록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기능성분을 지닌 보리, 콩 등의 기능성 강화 품종을 기술이전을 확대해 산업화를 촉진한다.

#### ▲국제 농업기술 성과 확산 및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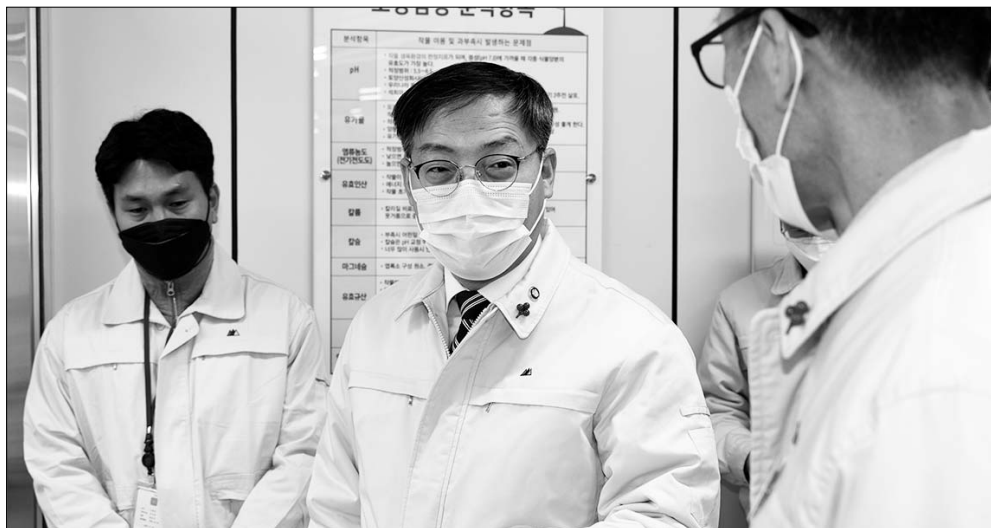
농업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

(R&D)과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농식품안전성 등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에도 적극 참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해당 국가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격을 높인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KOPIA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인다.

박병홍 농진청장은 “지속가능?고령화와 기후변화로 농촌?농촌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 코로나로 식량안보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영역과 역할 분담을 통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박병홍 농진청장은 27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시설과 치유·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장(원드림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영농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 “과학 영농시설 방역 수칙 준수 철저히”

### 박병홍 농진청장, 고창서 영농현장 방역 점검

박병홍 농진청장은 27일 전북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시설과 치유·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장(원드림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영농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과학 영농 시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분석실, 검정실 등을 일컫는다.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토양 내 인분과 부속을 분석해 비료·퇴비 적정 사용량을 진단하는 ‘토양검정실’, 바이러

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생산해 공급하는 ‘조직배양실’ 등이 있다. 박 청장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의 과학 영농 시설 4곳(유용미생물 배양장, 조직배양실,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을 살펴보고, 관계관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 시설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및 토양 분석을 의뢰하거나 유용미생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찾는 시설이므로 올바른 마스크 쓰기, 손소독·체온 측정, 출입 명부 작성 등에 소홀함이 없도

록 안내하고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원드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코로나19 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추이와 방역관리 상황을 살폈다.

원드림영농조합법인은 농작물을 활용한 치유 체험과 먹거리 만들기,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박병홍 청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설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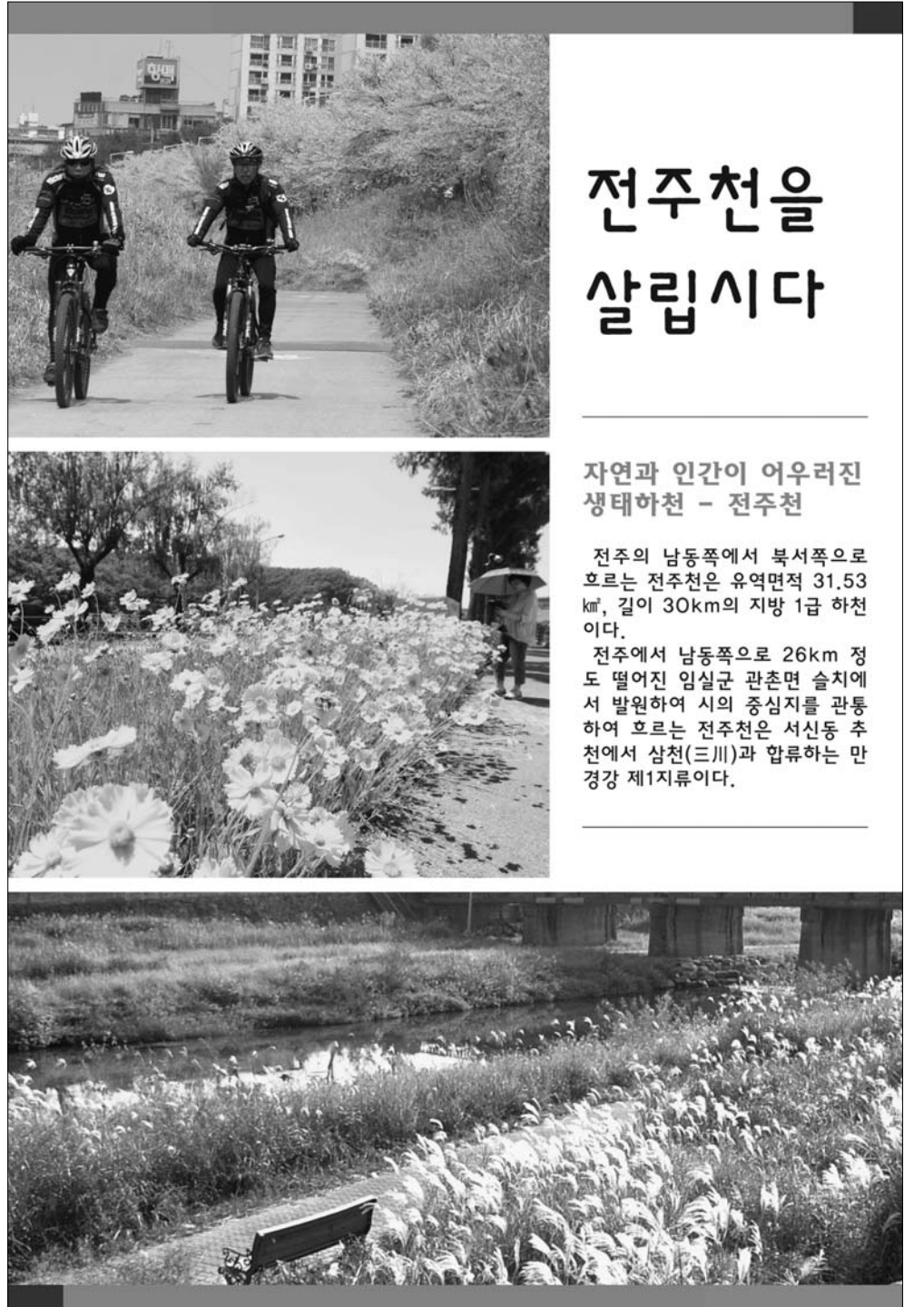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백신중요시설 등 중요시설 전기안전 확보 노력과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등 국가정책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 업무에 기

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동안 공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백신 관련시설과 민간 의료시설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해 총 8,2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수행했으며, 장전으로 인한 6회 긴급출동으로 백신저장시설의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공동주택시설 124개소의 노후·불량 전기설비 또한 개선했으며, 국민들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1,8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전기설비 무료안전 컨설팅과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LX-JDC,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맞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JDC)가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손을 잡는다.

LX공사와 JDC는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연계·발굴 및 확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지원 ▲스마트시티 등 JDC 추진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개선 및 서비스 개발 ▲스마트한 국제자유도시 정착에 필요

한 플랫폼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 자문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이로써 LX공사는 JDC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공간정보의 표준·통합방안을 마련해 JDC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 관리 등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JDC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제주도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상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LX공사는 추후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JDC 행정지원을 위한 LX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개선 및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신진조선소, 조달청장 표창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7일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한회사 신진조선소(대표 나동문)를 2021년도 하반기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해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한회사 신진조선소는 군산시에 소재한 항토 선박 전문 건조업체로서, 국가 지자체 관공선 등 특수목적 선박 납품을 통해 해양조선 산업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업으로 꾸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이주현 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조달업체를 발굴하고 내실있는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항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